"서로 존중하는 특별한 앙상블 손가락 튕기며 맘껏 즐기세요"

세계적 오케스트라인 베를린 필·빈 필 단원 등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가 오는 17일 광주문예회관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다. 〈WCN 제공〉

개성 강한 '필하모닉스' 인터뷰

"멤버들이 직접 기획하고 편곡"

지루한 클래식 편견 깨고 장르 뛰어넘는 무대로 세계적 입지

17일 광주문예회관서 내한 공연

"클래식 음악은 재미가 없다고요? 저희 공연에 오면 음악에 맞춰 손가락을 튕기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과 빈 필 단원 등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는 클래식은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세련된 편곡과 완벽한 연주로 장르를 뛰어넘는 무대를 선사하며 전세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결성한 뒤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며 연주를 펼치는 이들은 다음 달까지 일본,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 공연 등 일정에 빈틈이 없다. 특히 한국 공연의 첫 무대는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어 내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공연 준비가 한창인 이들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필하모닉스'는 베를린 필 악장을 맡고 있는 노아 벤딕스-발글레이를 비롯해 세바스티앙 거틀러(바이올린), 틸로 페히너(비올라·빈 필), 스테판 콘츠(첼로·베를린 필), 오돈 라츠(더블베이스·빈 필 수석단원), 다니엘 오텐잠머(클라리넷·빈 필 수석), 크리스톱스 트락슬러(피아노)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현악 4중주에 클라리넷과 더블베이스 그리고 피아노까지 더해진 독특한 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멤버들은 '서로의 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작은 앙상블일수록 멤버들끼리 저마다의 작은 움직임에 반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가 가진 음악적 개성들을 존중하고 있어요. 물론 필하모닉스의 모든 작품과 공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편곡까지 도맡고 있죠."

이렇듯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이 10년 넘게 우정을 지키며 앙상블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이들은 '존중'을 첫 번째 덕목으로 꼽았다.

"다 같이 모여 음악작업을 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필하모닉스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앙상블이기에 함께 호흡을 맞출 시간과 에너지를 늘 남겨둡니다. 라츠와 콘츠는 동문수학한 '절친'이고 트락슬러와 오텐잠머는 함께 축구클럽을 결성하는 등 자주 어울리고 있어요."

남다른 화합을 보여주는 필하모닉스는 최근 새 식구를 맞이했다. 베를린 필하모닉 제1악장(콘서트 마스터)인 노아 벤딕스가 수석 바이올린으로 합류하면서 이름도 '더 필하모닉스'에서 '필하모닉스'(PHILHARMONIX)로 바꿨다. 세계 최정상 교향악단(Philharmonic) 출신이라는 정통성은 살리면서 이름 끝에 'X'를 붙여 젊은 느낌을 더했다.

노아 벤딕스는 "필하모닉스와의 만남을 늘 기다려왔다"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숨김 없이 드러냈다. 나머지 멤버들 역시 "노아 벤딕스의 음악성과 인격은 우리 필하모닉스와 '완벽하게' 딱 맞는다"며 "우리 역시 그가 함께해 아주 행복하다"고 화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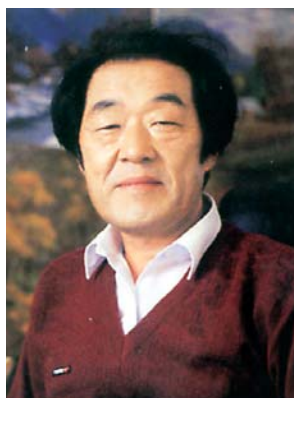
노아 벤딕스 외에도 멤버들의 각자 이력을 들여다보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하다. 3년 간의 빈 필 단원활동을 마치고 지난 2010년부터 베를린 필에서 연주를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스테판 콘츠는 지난 5월 필하모닉스 멤버 크리스톱스 트락슬러와 내한 공연을 가졌다. 더블베이스 오돈 라츠는 지난 2016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작업한 앨범을 내며 솔로 활동에도 두각을 보이고 있으며 클라리네티스트 다니엘 오텐잠머는 빈 국립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단원인 아버지와 베를린 필 클라리넷 최연소 수석단원인 동생과 함께 가족 트리오 '더 클라리노츠'를 만들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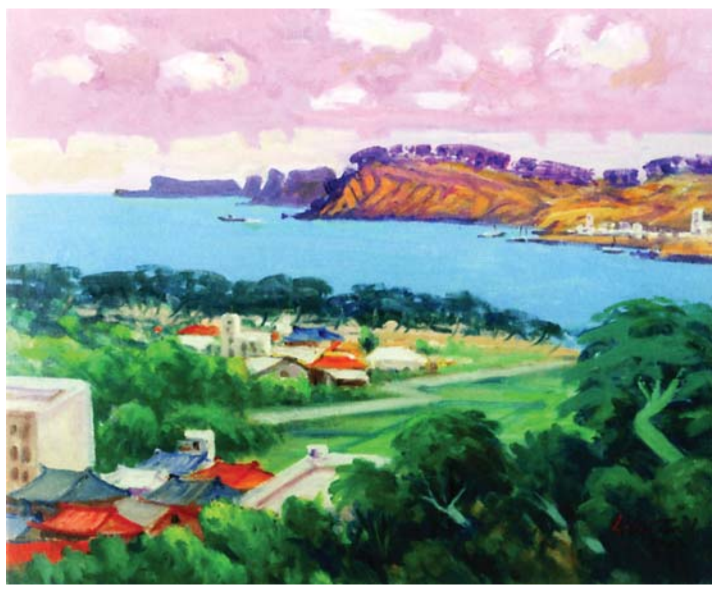
광주 공연에서는 필하모닉스가 최근 펴낸 신보 '비엔나 베를린 뮤직클럽'에 담긴 음악들로 무대를 채운다. 정통 클래식과 팝송, 탱고 등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대중에게도 사랑받을 음악들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타이틀인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와 스팅의 '잉글리쉬맨 인 뉴욕',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요한스트라우스 '박쥐' 서곡, 험퍼딩크 '헨젤과 그레텔' 서곡 등이 이어진다.

R석 8만8000원, S석 6만6000원, A석 3만3000원. 예매 티켓링크(ticketlink.co.kr). 문의 062-220-054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우진 기증작 화집 출판 기념전

고향 진도에 200점 전달…6~12일 광주 무등갤러리





'해변'

일흔 중반의 노(老) 화백은 계절이 바뀔 때면 화구를 들고 여전히 야외로 나간다.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광주 사생회 회원 등이 늘 함께 하는 벗들이다. 그는 60여년간, 아름다운 풍광을 화폭에 담아왔다. 발품을 팔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만나는 '생생한' 자연의 모습과 감동을 표현해 왔다. 작가는 "나에게 현장 없는 그림은 없다"고 말했다.

진도 출신 서암(瑞巖) 이우진 화백은 최근 대표작 '진도 아리랑' 등 200여점을 진도군에 기증했다. 지난 2015년 진도문화예술회관에서 초대전을 가졌던 그는 현재의 자신을 만든 고향에 보답할 것을 찾다 작품 기증을 결심했다.

이 화백이 기증작 200여점을 오롯이 담은 화집 '이우진-자연과 교감한 감수성의 예술세계'를 출간하고 기념 전시회를 갖는다. 6일~12일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

이 화백을 대표하는 작품은 두터운 질감과 온화한 색감이 인상적인 풍경화들이다. 광주사범대학 미술과를 졸업한 그는 진도 서중학교를 비롯해 강진 병영중, 전남여고, 순천고 등 40년 넘게 남도 곳곳에서 교편을 잡았다. 학교를 옮기며 남도 땅에서 만난, 사시사철 다채로운 풍경은 자연스레 작품에 녹아들었다. 바다, 산, 농촌 풍경은 그의 붓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사람들에 감동을 전한다.

화집에는 진도 쌍계사의 소박한 모습, 운치 있는 운림산방의 가을 풍경, 무등산의 설경, 지리산의 봄, 성산 일출봉의 풍경 등 수려한 풍광을 담은 작품이 실렸다. 또 1990년대 초반부터 떠난 해외 스케치 여행에서 작업한 네팔 안나푸르나, 일본 가고시마, 포루투갈 등 이국적인 풍광들도 만날 수 있으며 미술평론가 김인환·윤진섭의 글도 담았다.

이 화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은사들이 많다. 진도중 시절에는 김영중·배동신 선생 지도를 받았고, 미술반에서 활동하던 진도농고 재학 시절에 만난 고(故) 양인옥 선생과는 이후 교사가 된 후로도 인연이 이어져 항상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스승이자, 배우고 따르고 싶은 어른으로 자리잡았다. 대학시절에는 강용운·양수아·조복순 선생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풍경화 등 40여점의 대작과 소품이 관람객들을 만난다. 전시를 마치고 나면 전시작들은 진도군에 기증 될 예정이다. 군은 초등학교 폐교를 리모델링해 이 작가의 작품을 보존·전시하며 내년에는 기획전도 열 예정이다.

전남도전·목우회전·프랑스 르·싸롱전 등에서 입상한 이 화백은 1998년 대한민국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언 등을 역임했다. 전우회·진미회 회장을 지냈으며 목우회·전우회 회원, 광주사생회와 토만사 고문, 광주미술상운영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암수술을 두 번이나 하며 투병생활을 하던 당시에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는 여전한 '현역 작가'로 자연 풍광을 화폭에 담으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초대 일시 오는 6일 오후 5시. 문의 062-225-962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내일 정운학 작가 작업실 방문

(재)광주비엔날레가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월례회' 일환인 GB작가 스튜디오 탐방 열일곱번째로 정운학 작가의 작업실을 4일 오후 6시 30분 방문한다.

매체의 다양한 형식들과 빛을 이용한 설치작업을 펼치며 광주에서 미디어아트 장르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정 작가는 2011년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초대전 등 10회 이상의 개인전을 통해 대상에 담겨져 있는 언어들의 의미를 빛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과 프랑크푸르트 국립조형미술학교 슈테델슐레를 졸업했으며 광주시립미술관 레지던시,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레지던시, 은암미술관, 홍림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와 2014년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감독으로 활동했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